전은 노조 창립 53주년 맞아 참좋은전북에 후원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이 노조 창립 5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은 지난 5일 지역 상생 가치 실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참좋은전북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 참좋은전북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지역사랑성금을 바탕으로 연중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참좋은전북 권기봉 이사장과 정원호 위원장,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노조 창립 53주년을 맞아 지역 사랑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선배들과 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금지면 농가 일손돕기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일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포도농가(농장주 김도현)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 전북생명총국(총국장 지광수), 농신보남원센터(센터장 이성진),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 등의 임직원 및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포도 봉지씌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종주 시 지부장은 내 일처럼 달려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농업인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농심천심'의 자세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농협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청소년 락 뮤지컬 '빨간기타' 개최

장수군은 지난 2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극단청창의 세대공감 청소년 락 뮤지컬 '빨간기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수군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뮤지컬 '빨간기타'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분식점을 운영하는 아빠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지만, 이해와 공감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휴먼 감성 작품이다.

극은 30여 년의 세월만큼 다른 생각을 지닌 아빠와 딸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음악과 요리가 어우러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니랑 석이의 음악&요리 이야기-빨간기타'를 함께 운영하며 진정한 소통과 가족애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공연은 역동적인 락 음악과 생동감 있는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여름철에도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 대응

전북대, 전기안전공사와
지역혁신 모델 구축 '맞손'
AI 융합교육 · 공동연구 등 연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손잡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대응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려는 행보다.

전북대는 지난 5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성장엔진 연계 교육·연구, AI 기반 융합교육 혁신,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지역 산업 수요를 연계한 실질적 협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기관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공공기관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성장엔진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 △AI 기반 미래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 △시험·분석 장비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공공기관 간 연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5일 오전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헌화 및 분향 등 참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8명이 참석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특히 이번 참배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공직자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주정민 소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정행정의 최일선에서 엄정한 수용관리와 내실 있는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원을 찾아 참배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참배 행사는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컨소시엄 출범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국제진료협력센터(센터장 유인천)가 주관하는 이번 컨소시엄은 전북권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컨소시엄에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예수병원, 온누리안과병원, 소피아여성병원, 누가한방병원, 석정웰파크병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의료 역량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진료와 회복, 체류, 관광을 연계한 통합형 의료관광 모델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컨소시엄 출범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여 기관들의 특화 의료기술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컨소시엄은 참여 기관 간 글로벌 핫라인 구축, 해외 맞춤형 의료서비스 패키지 개발, 전북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 고도화 등을 공동 추진하며 전북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유·초·중·고교 교(원)장 간담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경남 사천시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및 교육전문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26. 장수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26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인 책임교육 실천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체험형 활동을 통해 학교 관리자 간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르고 팀워크 중심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 첫날인 4일 오전, 참석자들은 항공우주박물관과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을 방문해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한 미래교육 자원을 견학하며 창의·융합 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오후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영 전략과 교(원)장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동 스포츠인 '플로어컬링' 등 도전 과제 수행을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쌓고,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및 협력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함께 다지는 '리더십 챌린지' 활동이 이어졌다.

행사 이틀째인 5일에는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사천읍성 등 지역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차담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체험 중심의 팀 활동이 학교 관리자 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해신동, 시민참여예산 활용 전기압력밥솥 지원

군산시 해신동(동장 전미영)은 지난 5일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20가구에 전기압력밥솥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받은 주민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오래된 밥솥을 쓰다 보니 밥에서 냄새가 나고 눌어붙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제품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번 지원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해신동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이번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기자

부안해경,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 동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최근 부안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정기후원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관계자들은 부안해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주요 장학사업과 후원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안해경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장학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는 군민 한 사람당 한 계좌 이상 장학금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매월 1만원의 소액 후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재단은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재단은 현재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비롯해 특기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비진학 취업·창업 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꿈드래장애인협 남원, 한부모가정에 장학금 전달

남원시 왕정동은 꿈드래 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임광호)가 관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을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뻥튀기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으며, 해당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금을 받은 가정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아이의 학업에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임광호 지부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